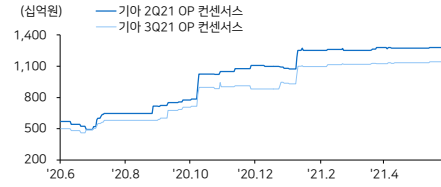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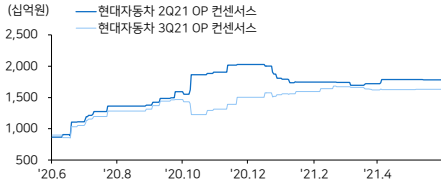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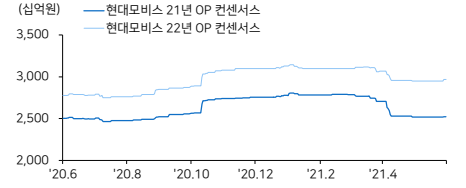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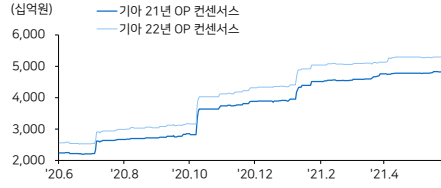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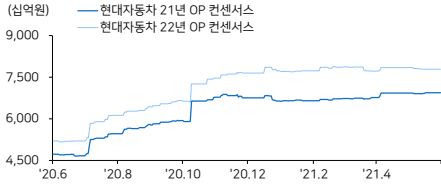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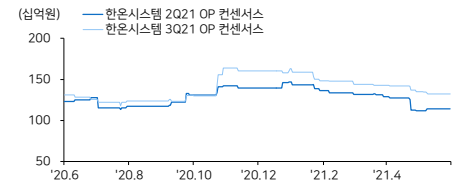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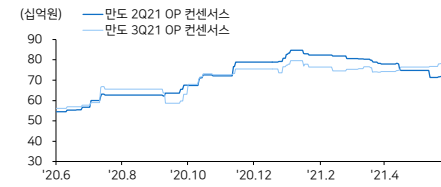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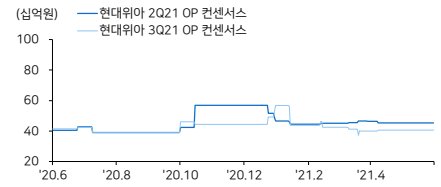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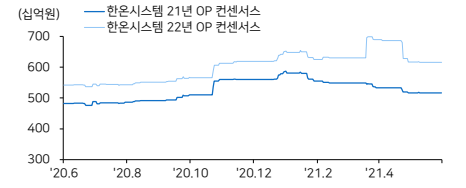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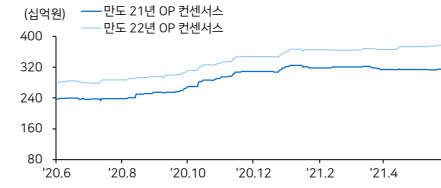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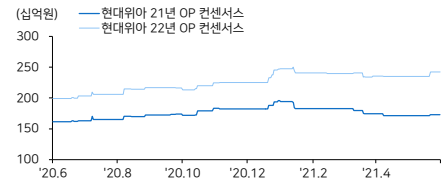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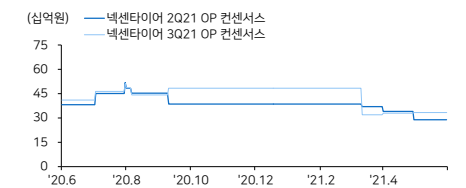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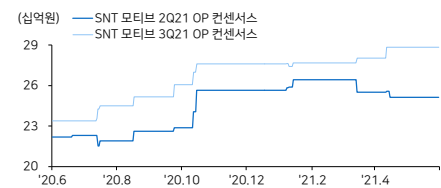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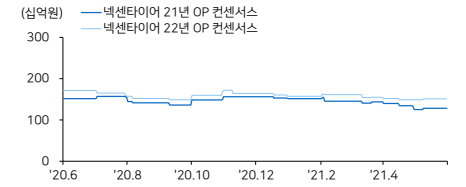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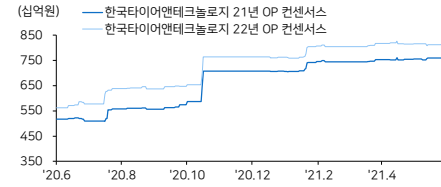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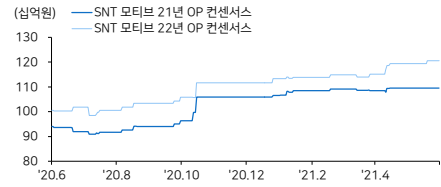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시험생산 나서 (THE GURU)

현대차 인도네시아법인(HDMI)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델타마스 공장에서 시험생산을 시작함. 현재 공정률은 99%로 이르면 3분기 내 자동차 생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험생산 차종은 현대차 전기차인 '코니EV'나 '아이오닉EV'로 추측됨. <https://bit.ly/3zEcJ1f>

현대차 베트남서 지난달 6천53대 판매...2개월 연속 수위 (연합뉴스)

지난달 베트남 자동차 판매실적은 COVID19의 영향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5% 줄어든 2만5천585대를 기록한 가운데, 현대차는 6,053대를 판매해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선두 자리를 지킴. <https://bit.ly/3cUy9Zv>

현대위아, 러시아공장 2.0리터 엔진 생산...쏘타타·K5 현지 생산 포석 (THE GURU)

현대위아는 오는 10월 완공되는 러시아 엔진공장에서 2.0리터 엔진 생산을 검토 중. 현대위아 러시아어 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가동을 할 예정. 현대차는 6월 기공식을 갖고 연간 24만대 승용차 엔진 생산 거점을 마련함. <https://bit.ly/3qhz0h9>

전기차 배터리 업계 "이벤트 스텔란티스"...수주 경쟁 후끈 (연합뉴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다음달에 공식 행사를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비전과 조달 계획 등을 공개할 방침. 이 와 함께 북미지역에서 생산하는 지프·크라이슬러·닷지 등 전기차 모델에 탑재할 배터리 발주를 공식화할 계획. <https://bit.ly/3zHqHY>

"가격 몰라도 일단 구매 예약"...미국서 들쭉 일어난 한국차 (한국경제)

호세 무노스 현대차 미국법인 사장은 최근 "지난달 이뤄진 신타쿠르즈 사전 예약신청에서 올해 계획한 생산량의 절반이 판매됐다"고 말함. 올해 생산량 추정치는 3만여대를 감안 시 약 15,000대 사전예약된 것으로 추정됨. <https://bit.ly/3gHilNj>

제네시스 'GV60' 독일서 막바지 담금질 (THE GURU)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일에서 위장막을 씌운 GV60가 주행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지속해서 포착되는 중. 제네시스는 GV60를 아이오닉5 대비 성능/감성 측면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전기차로 차별화한다는 계획. <https://bit.ly/3XcWj8>

"이게 중고차 가격이라고요?" 반도체 수급난에 중고차 가격도 급등 (아시아경제)

반도체 공급난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탓에 중고차 가격도 급등하는 중. 인기가 많은 차종 가운데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에 추월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음. 현재 인기 차종의 출고 대기 기간은 3~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https://bit.ly/3gJaxMG>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서 배터리 생산 공식 확인 (THE GURU)

미국 테슬라가 독일 규테 당국에 낸 기가팩토리 건설 허가 관련 문건에서 배터리 생산 계획이 공식 확인됐다. 오는 9월 공정 회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배터리 생산시설 구축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https://bit.ly/2TR7XwV>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